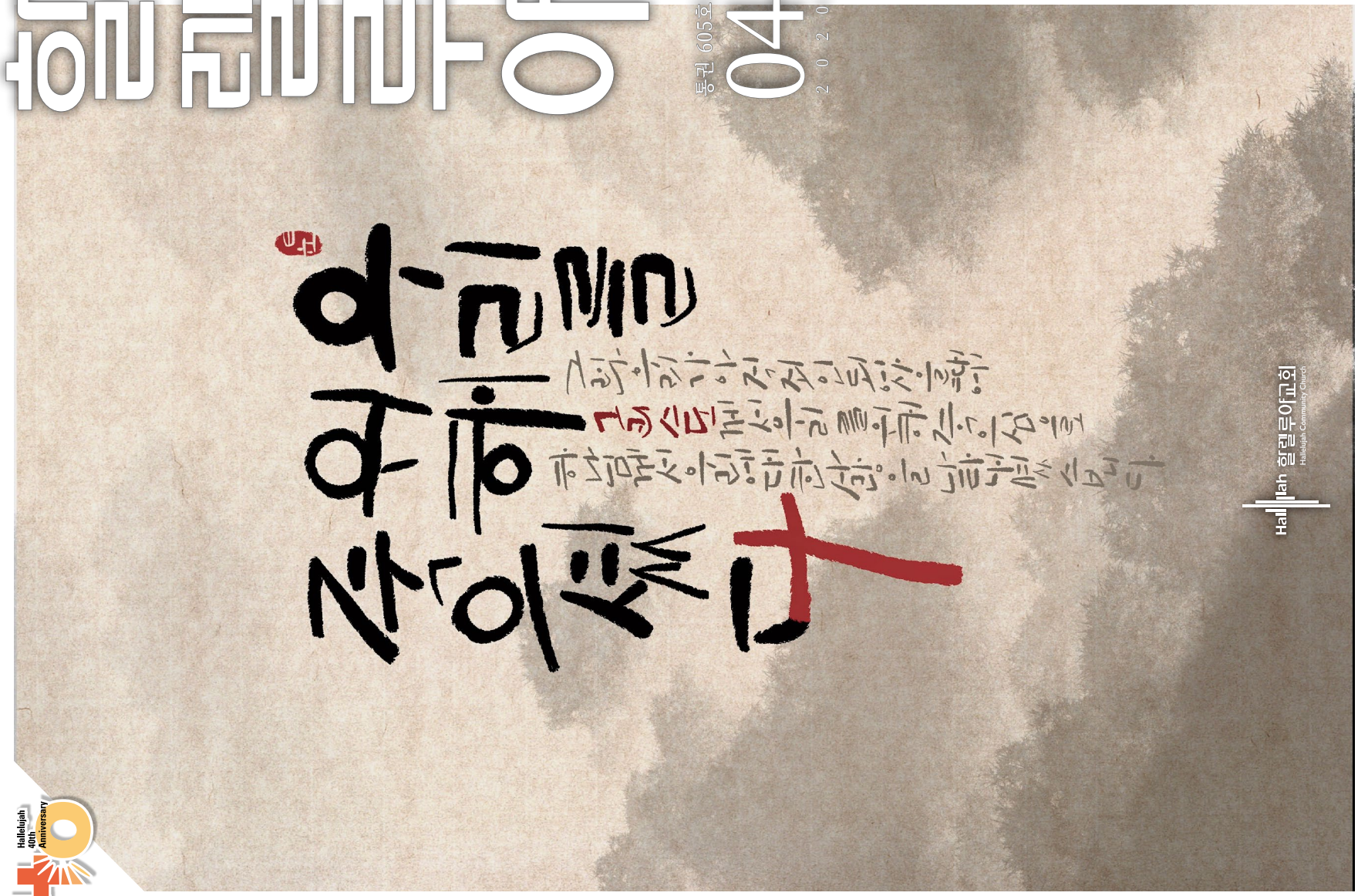
Hallelujah News

할렐루야

통권 605호 2020 04



Hallelujah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Hallelujah 40th Anniversary

2020 할렐루야교회 표어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 4:6)

오늘의 십자가

서계원 목사(신문팀 담당)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야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지나다 보면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밝은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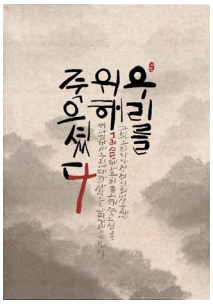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특징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삶을 만들어 냅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없이는 모두가 안전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모두가 간격을 유지해야 사는 이때 오히려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멀찌감치 계시던 그분이 더욱 밀착하여 나를 이끄시는 모습에 소스라쳐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놓인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마주하는 미중유(未曾有)의 예배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덧칠한 기도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저 하늘을 향해 높이높이 올라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로 걸러지는 더러운 찌꺼기들…. **'죄인 중의 괴수(딤전1:15)'**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십자가라는 터널이 필요했습니다. 비로소 나의 죄악이 저들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마땅히 십자가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노래하는 가수의 목에 걸려 춤을 추던 십자가가, 이제 존귀하신 그분의 몸을 입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와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이 뒤엉킨 긴 터널이 한 걸음 내딛기를 어렵게 하지만, 그분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자들은 십자가 뒤편 주님의 밝은 미소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에 감사합니다. 터널 속에서조차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으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할렐루야교회
창립 1980. 11. 16



<표지> **루야캘리** 이욱 형제

Hallelujah News 할렐루야신문사
1987년 5월 10일 창간
발행일 605호 / 2020. 4. 1
우)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전화 031-780-9583
e-mail news@hcc.or.kr

발행인 김승욱
지도목사 서계원
담당장로 임석철
팀장 이상철
총무 마준호 회계 이은경 서기 노신영
편집간사 지현아 디자인간사 김효진
신문위원 김원순 이영림 이욱
지준정 최은주
한정훈 황승국
교정 김학주
4월호 담당 최은주

사진 사진팀

할렐루야교회 신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0.04

CONTENTS

여는 글	오늘의 십자가	02
말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04
특집	십자가의 의미와 참된 열쇠	06
40주년 특집	바른 소망을 갖자	07
소개	할렐루야교회 온라인 사역	08
특집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10
간증	가정예배를 통해 주신 기쁨	11
	예배의 소중함	12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13
뉴젠	영아부 - 향긋한 봄내음을 맡으며	14
	초등2부 - 온라인예배로 더욱 담대하고 굳건해지길 소망하며	
	유치부 - 딸부잣집 네자매의 영상예배시간	15
	초등부 -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어 기뻐요	16
	초등1부 -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17
	중등부 -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	
	고등부 -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18
	포토에세이	
뉴웨이브	멀어지고 나서야 가까워진	19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할렐루야교회 소식	20
공동체소개	복지공동체	22
마더와이즈	내 인생에서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던 사건들	24
	할렐루야만평	
연재	신약 한눈에 보기(20) - 바울서신	25
간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6
	오늘 한 걸음 내일 두 걸음	27
종합	예배하는 우리집 / 이달의 추천도서	28
파랑새광장	할렐루야 소식	29
성경퀴즈	십자퍼즐	30
아트에세이	오늘도 괜찮아	31

□ 2020년 할렐루야 신문 글자 크기 조정

2020년 더욱 사랑받는 할렐루야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기획의 하나로 성도님들이 더욱 읽기 편하시도록 글자 크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일부 면을 제외하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 가독성을 높여보았습니다.

□ 할렐루야신문사에서는 성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신문사 메일(news@hcc.or.kr)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를 통해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할렐루야교회 존재 목적(Mission Statement)

할렐루야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glorify God by exalting Jesus Christ.)

홈페이지 www.hcc.or.kr **전화** 031) 780-9500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9-11)

김승욱 담임목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라면 성도의 고백은 헛된 것이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를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무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새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천국 나팔소리가 들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고전 15:52-53).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소망이 됩니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진정한 소망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인간의 숙명 앞에 부활 이외의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약속은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러한 가족이나 자녀를 둔 분들에게도 참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장애나 결핍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 가면 마오쩌둥의 영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에서는 레닌과 김일성의 영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미 죽은 자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살아계신 분을 가둬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오늘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며 우리의 참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것'이란 약속입니다. 장차 다시 살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이 미래에 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지금 적용되는, 현재의 삶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롬 8:9). 우리는 그 영으로써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롬 8:10)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 정욕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활의 새 약속입니다. 오래 전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중이던 죄수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미움과 원망으로만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을 녹인 것은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제가 어제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한 소년의 편지는 완고하던 사형수의 마음을 녹였고 그 계기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2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눈물로 사죄한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서 만난 다른 죄수 이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했다고 합니다. 한때 육신을 따라 산 자가 거듭난 후에 영을 따라 사는 자로 변하는 것, 부활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약속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며 정욕과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새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안과 기쁨의 사람들로 새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향한 미움과 실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써 용서와 화해,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새날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참소망이며 새 삶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참된 열쇠:

죽음을 통한 생명, 고난을 통한 영광

이병수 목사(선교공동체 담당)

마틴 루터(종교개혁자):
"참된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권의 책에서 찾아본 십자가:

1.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God with Us, 로완 윌리엄스, 국제제자훈련원)
2. 십자가로 돌아가라 (The Enigma of the Cross, 알리스터 맥그라스, 생명의 말씀사)

1. 십자가의 의미(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로완 윌리엄스)

1) 상징(The Sign):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2) 제사(The Sacrifice): 제사는 화해를 이루는 선물이며,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히10:20)입니다.
3) 승리(The Victory):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은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십니다.

2. 십자가는 참된 열쇠(십자가로 돌아가라, 알리스터 맥그라스)

삶의 열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입니다.

1) 십자가의 기초
- 십자가 신학: 하나님의 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계시된다는 것과 생명은 죽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 부활에 비추어 해석한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신 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되며, 약함, 고난, 핍박, 죽음의 본질에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통찰을 갖게 됩니다.

2) 십자가 아래 사는 삶: 신자는 자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른 소망을 갖자

한송자 권사
(8교구)

우리는 지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닫혔고, 우리의 발은 묶였으며,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지난날들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준비를 위한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는 일에는 익숙해 있으면서, 나를 보는 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는 일에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힘들었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족은 아버지께서 서울 서대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해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유엔군과 인민군의 밀고 당기는 3일간의 싸움은 참으로 치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리는 폐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의 다 지어진 교회의 마루밑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곳까지 폭탄이 떨어지고, 조명탄이 명멸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살려 주세요! 새벽쯤에야 폭탄소리는 잠시 멈춰지고, 조용해질 무렵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은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변하는 세상을 보여 주시면서….

집의 모양이 변하는 모습(아파트로)
음식이 변하는 모습(오늘날의 대체식품으로)
의복이 변하는 모습(방독면을 쓰고, 우주복 같은 옷으로)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당하면서 잊고 살았던 12살 때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설 수 있는가? 준비된 믿음, 바로 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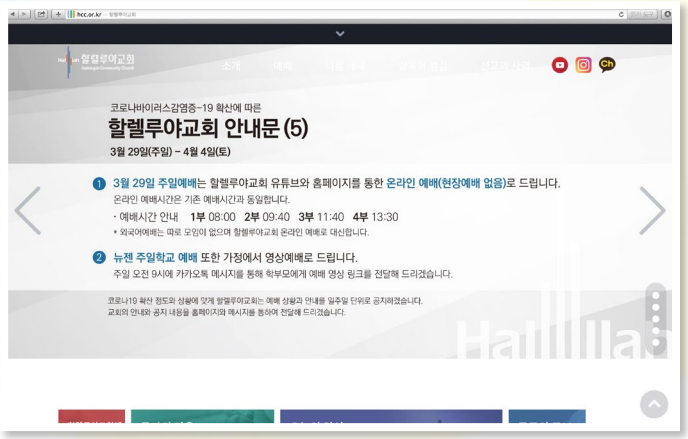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준비된 믿음으로,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로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교회 온라인 사역 안내

임채민 팀장
(목회지원팀)

온라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온라인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성도님들께 교회 내 온라인 채널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속에 담긴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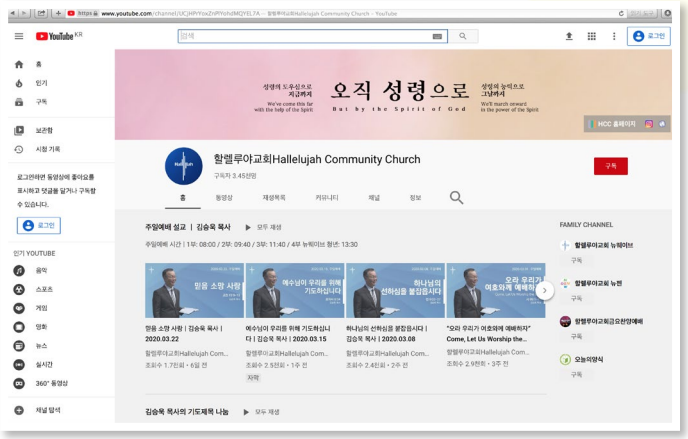
1. 할렐루야교회 홈페이지 www.hcc.or.kr



할렐루야교회 홈페이지는 모든 온라인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모(母)채널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회 소개 및 각 부서, 공동체 안내
2) 주일예배, 주중예배(수요초청, 금요) 생방송 및 설교 영상 시청
3) 교회 주보 및 할렐루야신문 열람
4) 교회 주요 소식 및 공지 사항 알림
5) 교회 조직 및 사역 안내
6) 각종 모임 및 사역 사진

2.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



할렐루야교회 유튜브는 할렐루야교회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 등을 영상의 형태로 전하는 온라인 사역의 핵심 채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일예배, 주중예배(수요초청, 금요부흥) 생방송 및 저장

2) 김승욱 담임목사의 기도제목 나눔 영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김승욱 담임목사의 기도제목 나눔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3) 공지 및 안내 영상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여 할렐루야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대한 공지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1주일 단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 합니다)

4) 찬양

모든 찬양 예배 중에서, 특별히 뉴웨이브 찬양과 금요찬양예배 찬양 부분을 편집하여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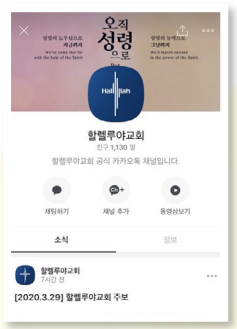
5) 김승욱 목사의 1분 메시지

김승욱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성도에게 감동이 되는 1분여 구간을 자막과 함께 생동감 있게 편집하여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 합니다.

6) 할렐루야교회 HIStory

2015년부터 해마다 제작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교회 역사와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3. 카카오톡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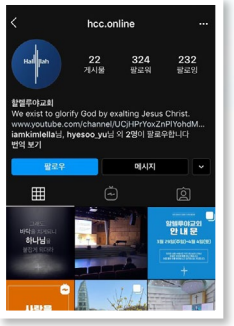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하여, 할렐루야교회 성도님들께 교회 소식을 전하고 설교 영상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간 소통할 수 있는 성도 통합채널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1) 교회 주요 소식 공지

2) 김승욱 담임목사 설교 및 기도 영상 링크 게시

3) 목자의 마음 및 주보 게시

4. 할렐루야교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특별히 20-40대의 성도님들을 타겟팅하여, 할렐루야교회를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김승욱 목사의 1분 메시지

김승욱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성도에게 감동이 되는 1분여 구간을 자막과 함께 생동감 있게 편집하여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 합니다.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과 동시에 업로드 합니다)

2) 카드 뉴스

주일 설교의 핵심 문장이나 단어 혹은 교회 슬로건을 예쁘게 디자인하여 제공합니다.

3) 교회 주요 행사 및 교회 전경 사진 업로드

4) 김승욱 담임목사와의 라이브 방송

20-40대 젊은 청년 성도들과 소통의 장으로 재미와 친근함이 있는 콘텐츠로 첫 방송을 지난 3월 15일(주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더 쉬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 나아와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팀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교회 온라인 사역팀 : hcc.online2020@gmail.com

온라인예배를 드리며

김민수 목사(예배공동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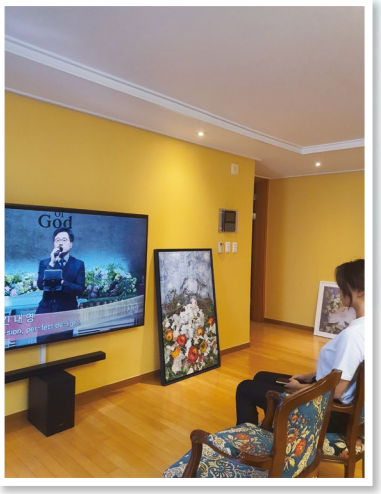
봄내음 가득한 4월입니다. 산천초목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계절이지만 올해의 봄은 너무 생경하고 어색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잠정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대신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금과옥조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을 강조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언제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기 위해 주님은 전통과 제도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막 2:27)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 인근과 성남 지역에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염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교회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 지역 성도들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교회들과 함께 온라인예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예배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느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그동안 감사와 기쁨이 없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늘 해오던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었고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부담스럽게 여겼던 지난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그만큼 이제 곧 모든 사태가 정리되어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날을 생각하면 그날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뜨거울지 가슴 벅찬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어떠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요 4:23-24).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완성해 나가는 것임(엡 2:21-22)**을 우리는 온라인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직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예배와 온라인사역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작 전까지 성경책과 설교노트를 준비합니다. 숙도 후에는 화면에 안내되는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온라인이란 방식을 통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목회실에서는 매주 온라인예배와 온라인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대면하여 사역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날 그날에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온라인 예배에 따른 오프라인 예배는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지키며 당회원과 목회자만 참석하였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주신 기쁨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어서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저는 확~~찐자가 되어 있었고, 확찐자의 동선인 침대, 소파, TV, 냉장고, 식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되는 코로나19 뉴스와 쏟아지듯 들어오는 부정적인 내용의 카톡들을 보면서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꿈을 꾸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리는데 다른 차에서 내리시던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꿈에서 '아! 이분 우리 교인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로 도움을 요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연락하려는데 너무 당황해서 마음과 손은 떨리고, 전화번호는 못 찾겠고, 주변은 너무 시끄럽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급해서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꿈에서 깨었습니다. 잠깐 꾼 꿈이었지만 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고 이게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서 잠잠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리셋'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만 리셋과 충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돌아보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해 내 영의 근육 단련하기! 몸의 건강을 위해 집 안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집 안을 영육의 건강을 키우는 트레이닝 장소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정했습니다.

주 1, 2회 야외 운동하기, 1일 3회 스트레칭하기,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기도하기, 1일 1 설교 듣기, 1일 2회 말씀 먹기, 매일 저녁 담임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 사랑방, 교구,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라인 교회의 불빛이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켜지고 그 불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와 봉사, 성도 간의 교제 등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교회가 그립고 믿음의 지체들이 그립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믿으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허락하실 그때, 홈 피트니스, 홈 트레이닝을 통해 더 정결케 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정희 집사
(10교구)

예배의 소중함

조정훈 집사(4교구)

2020년 새해 벽두,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급기야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요즘 TV를 켜면 하루 종일 나오는 '코로나19' 소식.

올해 팀원이 대폭 바뀐 '할렐루야교회 성경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새로 편성되는 강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성도들의 수강 신청을 2월초에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강의마다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까라는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교회 밖의 사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급변하였으며, 드디어는 평생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전염의 우려로 '회중 예배'는 중지 되었으며 '온라인 예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교회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을 지낼 때도 웬만하면 회중 예배를 지켰으며, 혹은 교회가 피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등 일주일간 각처에서 수고한 지체들이 성소에 함께 모여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계명 중 하나이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못가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소했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그동안 지탱해오던 모든 사회 시스템이 맥없이 휘둘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만하던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까? 아니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 주는 또 다른 경고일까? 분명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었다.

일상 즉 하루하루의 평범한 우리의 삶은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게 주어진 자신의 몫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결국 '코로나19'의 유행을 통해 일상은 그동안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커다란 축복과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일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상의 나날들이 특별히 감사한 일이라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감격해하거나 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저 나의 선택으로 교회에 출석한 것일 뿐이며 혹시 교회를 출석 못하게 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일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급기야는 수많은 교회의 예배 중단을 가져왔고, 몇 주째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동안 당연시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단 신천지 집단'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아니든 '이단 신천지 집단'의 실태를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소멸하여 모든 국민은 물론 할렐루야교회 모든 성도가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형식적이 아닌 서로 진정으로 돌보는 사랑방 모임과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소소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현석 집사(4교구)

샬롬~

작년에 어떤 교회가 그들의 내부 문제로 둘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문득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하니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참 먹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눈앞의 현실이 되니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들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정도였는데 신천지를 통해 점차 확산이 되며 급기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 청소부터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주목되면서 신천지를 향한 애통함을 넘어 제 자신과 저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날 아내와 함께 그동안 교회와 사회, 가정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에 대해 나누며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임에도 나를 앞세우며 감사함보다 당연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아침 일찍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던가.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배시간이 되니 입술에서 나오는 준비찬양부터 제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마저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며,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 말씀에 더 집중하며 더욱 신나게 율동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많은 분들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예배였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니 풍성한 은혜가 되었고, 요즈음 아내가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기도에서 주신 마음 그대로를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기도로 응답 받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닫힌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의 훈련과 예배의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기도 또한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정금같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영아부

향긋한 봄내음 맡으며 예배당에 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신서영 성도(3교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몇 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예배를 드린 후 점심을 먹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 하엘(3세)이와 남편과 준비를 하며 그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일이면 분주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탓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늘어갈수록 한편으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무뎌지지는 않을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축복해주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새봄이, 근래의 얼어붙은 일상 안으로 스며드는 3월의 막바지에 나라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라는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불쌍히 여김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인간의 실수를 완전히 역이용하시는 분이시니 향긋한 봄내음을 맡으며 예배당에 갈 그날이 곧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등2부

온라인 예배로 더욱 담대하고 굳건해지길 소망하며

최지영a 집사(8교구)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약 3주가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교회 문이 닫혔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린 주일은 뉴젠에 속한 두 아이가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낯설었던지 집중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뉴젠 각 부서 영상 설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영상들이 올라오자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뉴젠 설교들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예배를 드린 후 중등부 그리고 초등2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중등부 목사님의 등장에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해 하는 큰딸 주아(중3), 초등2부 전도사님의 설교 마무리에 나온 주기도문을 사도신경과 혼동하는 둘째 딸 주원(초6)이를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를 온라인을 통하여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뉴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우리 가족 마음속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연약한 마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곧 예배당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유치부

딸부잣집 네 자매의 영상 예배시간~!!!

김나라 집사(2교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대표기도하는 재율

대표기도하는 라율

저희 가정은 김율(초3), 재나(초1), 라율(7세), 재율(5세) 이렇게 네 명의 딸아이들이 있는 딸부잣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은 학교도, 학원도 모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우리 교회 뉴젠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령이 다 다르고, 따라서 속한 뉴젠부서가 달라, 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그리고 영어예배까지 영상으로 드려야 하죠. 자매들은 각자 부서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배가 진행될 때는 뭔가 어깨가 뿜뿜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지, "이건 내가 드리는 예배야~!"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 예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예배 도중에는 대표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헌금바구니를 따로 준비해 그날의 헌금위원이 헌금을 걷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드립니다. 아이들이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용은 코로나19가 어서 없어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의 뉴젠 부서마다 십자말 퀴즈 맞히기, 예배 소감 보내기, 예배 영상보내기, 암송하기 등 주어진 미션들이 있어, 영상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매우 바쁘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자매들은 영상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나누고 마치 현장예배가 있었던 시절처럼 제일 큰언니의 주도 아래 반모임도 합니다. 네 명은 반 모임을 나누기에 딱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9시부터 시작된 각종(?) 뉴젠부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11시 40분 대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대예배실의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도 대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 온라인예배로 드리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큰소리로 찬양하고, 심지어 방방 뛰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 대예배도 너무나 흥이 나는 예배시간이 됩니다.

물론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집에서 아이들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예배를 독려해가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정예배를 착실히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준비에 대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구별하여 지키며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초등부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어서 기뻐요

윤인태 · 장지혜 집사(1교구)

온라인예배라는 것이 참 생소하고, 이러한 예배가 처음이다 보니 가장으로서 '과연 우리 가정이 집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여러 교회의 사례도 찾아보았고, 또 할렐루야교회에서도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과 자세를 안내해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채언(6세), 서언(7세), 하언(초2), 주언(초4) 이렇게 각 부서에 속한 자녀가 4명이다보니 9시 유치부 예배부터, 초등1부, 초등2부, 11시 40분 저희 부부가 드리는 예배까지 총 4번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관람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기 위해 되도록 정한 시간, 깨끗한 주변환경, 단정한 복장, 바른자세, 방해받을 만한 스마트폰 등을 치워 두는 일, 아이들을 위해 작은 바구니에 십자가를 오려붙여 만든 헌금함을 준비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부부의 마음과 노력을 아셨는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전해 주셨던 것 같아 부족한 자리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부모로서 아이들 예배를 도울 땐 평소 교회에서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평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담임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동참하는 노력이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아이들이 오늘은 교회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희부부도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다 함께 만나길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어서 기뻐요.^^

초등1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박현영 집사
(8교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요즈음 교회 안에서, 소모임 안에서 만나던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사랑방 식구들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매주 예배 전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모든 관계들이 소원해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들에 대한 마음조차도 거리가 생긴 듯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분주함과 여러 환경들로 인한 어지러웠던 주일 아침 예배를 조용하고 독립된 나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예배로 바뀌게 하셨고, 우리 하율·하람(초3)이 또한 뉴젠 예배 안에서 믿음이 한층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 가정이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봅니다.

중등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

장동주
(중3,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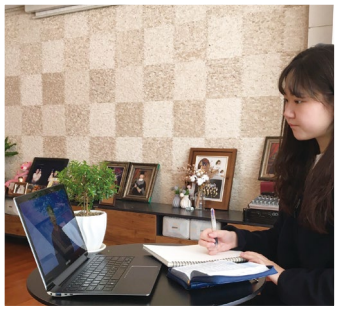
세상에! 우리 가족이 3주째 교회를 못가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에는 혼자 중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가족이 집에 모여 함께 예배하니 처음엔 살짝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중등부 신선호 목사님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들으니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보다 더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저는 조금 예민해져 있어서 사소한 것에도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때 온라인 주일 예배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가지는 못하

지만, 매일 자기 전 성경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도 저와 함께하심을 느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지 못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모두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학교는 물론 교회까지 못 나가는 슬픈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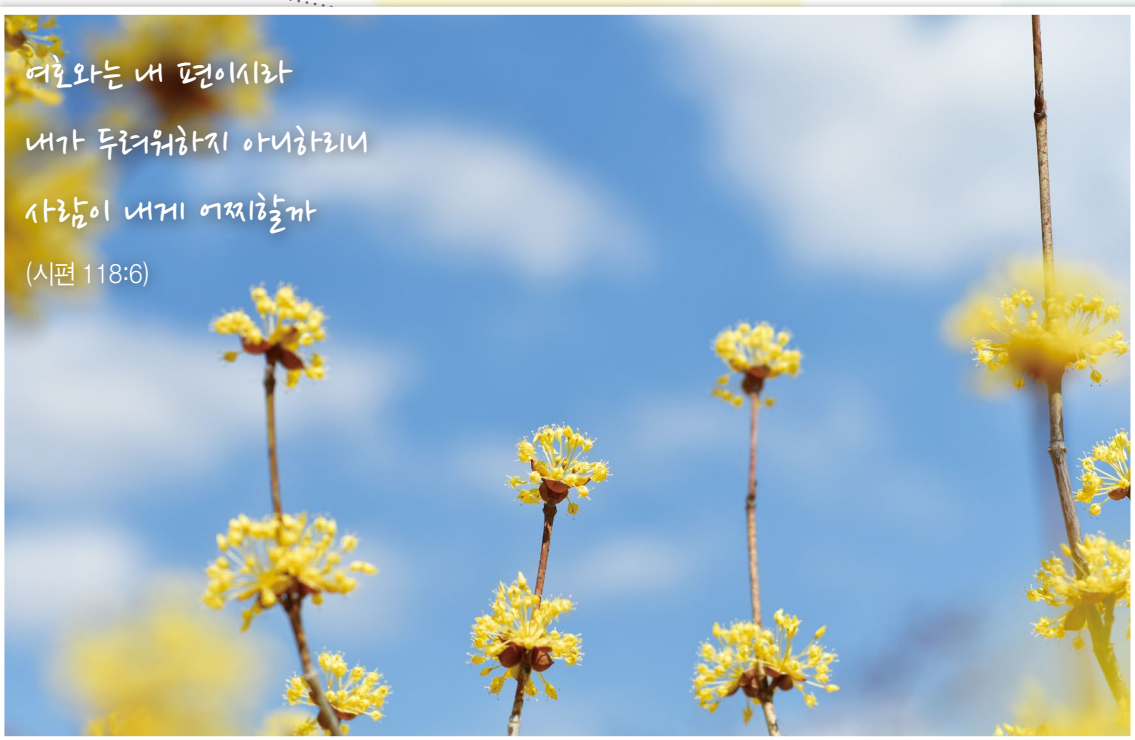
고등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장혜준
(고2, 부회장)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학원은 물론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동 범위가 축소되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교회에 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까움이 클 따름입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대신, 주일 아침에 단정한 복장을 입고 모여 온라인으로 각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갔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이를 기억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럽고 예민해져있던 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 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포토에세이 양재명 집사(7교구)

멀어지고 나서야 가까워진

김효진 자매
(청년2부)

할렐루야교회에 처음 온 것은 2007년. 안산에 살던 부모님이 경북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나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분당에 있는 외가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외가 식구들이 할렐루야교회를 출석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교회에 출석했다.

할렐루야교회를 출석한 뒤로 서현, 정자, 의왕, 용인, 부모님이 계신 경북의 본가를 거쳐 지금의 마포구에 정착하기까지 1~2년 단위로 대략 10번의 이사를 했다. 이사를 거듭할수록 교회는 점차 멀어졌다. 교회가 점점 물리적으로 멀어졌음에도 비교적 활용할 시간이 많았던 20대 시절에는 교회에 가기 위해 소요되던 나의 시간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삶이 바빠질수록, 먼 거리를 이동해 온 시간이 쌓여갈수록 교회에 대한 거리감이 더 강하게 다가왔다.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도 참여했던 평일 공동체 모임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할렐루야교회 예배와 뉴웨이브 공동체 모임. 부모님 댁에 찾아가야 하는 주말 또는 건강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라도 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조차 가기 힘들어 결국 지난 1년은 뉴웨이브 공동체 모임에서 아예 멀어졌다.

코로나19,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교회가 더 가까워졌다

3월 1일,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다가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렸다. 오후 1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신문사 회의에 참여하고 오후 1시 30분이 되면 다시 4부 예배를 드렸다. 혹여나 집중하지 못해 놓쳤던 내용이 있으면 다음 예배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었다. 4부 예배가 끝나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청년2부 담당 최강용 목사님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바이블 20' 강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3월 15일,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뉴웨이브는 온라인 모임을 더욱 강화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김승욱 담임목사님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4부 예배가 끝나면 최강용 목사님의 바이블 20 유튜브 라이브가, 화요일 밤 8시에는 화요 로방 기도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수요일 밤 9시에는 안만기 목사님, 한나래 자매, 김성철 형제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목요일 밤 10시에는 김사무엘 목사님과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팟빵을 통해 최강용 목사님의 듣는 통독까지 삶이 바빠서, 거리가 멀어서 참여할 수 없었던 공동체 내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리 있던 교회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온라인 화요 기도회, 로방의 문을 닫고 439호에서 방송되었다.

교회가 멀었다. 멀어도 너무 멀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를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하는 것이 아닐까 진지한 고민이 깊어가던 때에 교회가 다시 가까워졌다. 먼 거리에 지쳤던 내 마음이 잃었던 것들, 삶에 지쳐 돌덩이같이 굳어져 잊어버렸던 것들이 매일 내 집 안에서 아주 가깝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었다. 다시 모여 드릴 예배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지워졌던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을.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할렐루야교회'

뉴웨이브 마스크&간식 기부운동

"우리도 어렵지만 거리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도 못 구하고 무료 급식소 운영도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던 2월 중순에 이와 같은 뉴웨이브 청년들의 질문과 관심으로 마스크와 간식 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이 더욱 밝아지길 소망한다.

호스피스팀 성남시의료원에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전달

지난달 26일 성남호스피스연합회는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성남시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성남시의료원은 2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격리병동에는 현재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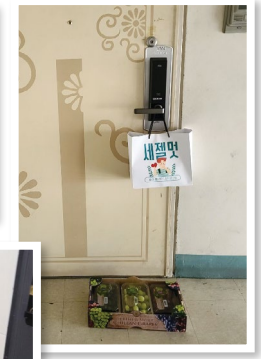
할렐루야교회 호스피스팀 한동수팀장(오른쪽끝) 이정은전도사(오른쪽 4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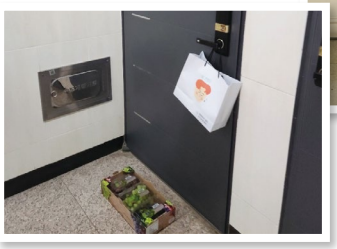
의료원 8층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15병상 마련되어 있으며 차후 정식개원이 되면 사회사업실과 자원봉사 운용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봉사

의료선교팀 백기학 장로는 현재 의사로 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진과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미열 등 증상이 있는 분들을 하루 100여 명 검사하고 있으며, 부천 하나요양병원에 확진자가 생겨 코흐트 격리 조치를 하였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말씀하시며 보호 안경 너머 따뜻한 미소로 포즈를 취해주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복지공동체 사회복지팀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장애인 이웃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할렐루야 광주 주간보호센터로 전달했다. 전달해준 후원금과 센터 교사들의 정성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과일 등을 준비하여 14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문 앞에 전달해주었다. 작은 정성과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복지공동체의 임원과 사랑부 그리고 광주 할렐루야 주간보호센터 교사들은 교회의 소중함과 연합의 기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 코로나19 대구 교회 및 시민돕기 성금 답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가 지난달 26일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 교회 및 시민 돕기 사랑실천 캠페인'에 일주일만에 전국과 해외에서도 성금이 답지했다. (중략)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전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교회와 시민들을 위하여 성금을 보내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성시화운동의 모토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시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췌 굿처치뉴스(2020.3.6)

교회가 지역사회·국가 아픔 세심히 살펴야 할 때

사진 출처 성남시 누리집

경기도 성남의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곳 8개 교회 목회자들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에 모여 긴급구호금의 사용처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목회방안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목회자들은 신천지 탈퇴자들의 정통교회 정착을 돕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남 지역 12개 교회는 총 3억6천만원을 모금해 성남시에 5천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대구시청에 3억1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8개 교회 외에 갈보리교회(이웅조 목사)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 샘물교회(채경락 목사)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도 함께하고 있다.

발췌 국민일보(2020.3.6)

복지 공동체

복지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공동체이다.

복지공동체는 사회복지, 지역섬김, 나눔, 이주민, 장학, 스포츠, 결혼예식, 서점, 매점카페, 식당, 사랑부 등 총 11개 팀(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목표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VISION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역을 통해 나눔을 하고 있다. 사역으로는 사랑의 장애인 복지(옷가게) 사역, 사랑의 반찬(오병이어) 사역, 사랑의 고치미 사역,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 사역, 사랑의 바자회 사역이 있다.

문의 팀장 이명렬 안수집사(010-2263-3877)

서점팀

서점팀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문화적 지식을 돕고 교회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일 오전 8:50~오후 3:00까지 문을 열고 도움을 주고 있다. 성경책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적들과 주일 설교CD 간단한 문구류 기타 팬시 용품도 구비해 놓고 있으며 문화 강좌를 통해 지적, 영적 소통을 갖기도 한다. 현재 6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고 있다.

문의 팀장 송교택 안수집사(010-3267-5264)

지역섬김팀

지역섬김팀은 노숙인 밥퍼 사역과 우리들 학교 및 고아와 미혼모 돌봄 사역을 하고 있다. 먼저 노숙인 밥퍼 사역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6시에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사랑마루 공동체에서 35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간식을 제공하는 봉사를 한다. 또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4시부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탈북민 학교인 우리들 학교를 방문하여 미혼모와 고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팀장 윤정성 안수집사(010-6212-8713)

스포츠팀

스포츠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성장을 도우며 잃어버린 양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교우들간 스포츠 동호회(농구 , 배드민턴, 라켓볼, 족구, 탁구, 풋살)를 통해 교제와 건강증진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단합과 선교를 지향한다.

문의 팀장 김정희 안수집사(010-9958-3058)

식당팀

주일 국수 배식 관련하여 국수 삶기와 식기 세척 및 식당 홀 청소를 하고 있으며, 교회 주요 행사와 관련하여 식당봉사 지원 및 참여로 봉사자와 교우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 공동체 공동행사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문의 팀장 강동순 안수집사(010-3214-1393)

장학팀

장학사역의 기본정신은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육성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복지 공동체(225-1호) 장학팀에 제출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복지 공동체 장학 팀에서 배부한다.

문의 팀장 추인구 안수집사(010-2259-8696)

이주민팀

2019년에 새롭게 다문화팀으로 발족하여 2020년부터 다문화팀이 '이주민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광주, 가평, 청평, 남양주, 이천 등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작은 공동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이주민들이 조국에 '역파송' 되는 귀중한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또한 지난 1년 간의 사역을 통해 이주민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문의 팀장 김동환 안수집사(010-3121-2710)

사랑부

사랑부는 장애인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부서이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109호(사랑부 예배실)에서 있으며 사랑부 주요사역으로는 사랑부 예배, 장애인 주일, 야외예배, 사랑부 여름수련회, GIFTS 찬양팀, 레크댄스, 미술치료, 경배와 찬양, 공연 및 진로 지도 및 교육활동 등이 있다.

문의 팀장 최산범 집사(010-5274-3102)

나눔팀

할렐루야교회 공동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개인, 섬김 단체, 독거노인, 러시아예배, 중국어예배 등)들을 대상으로 성금과 사랑의 곳간(성미) 사랑의 기금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한량없으신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문의 팀장 윤창구 집사(010-6353-5614)

매점카페팀

모든 성도가 즐겨 찾는 친교의 공간이자, 믿음의 자리 Annie Cafe와 매점은 믿음의 공동체인 3세대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믿음의 자리가 성장하는 복음공간이다. 커피와 빵, 음료 다양한 먹거리 등 모든 판매이익금 전액을 믿음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다.

문의 팀장 강유성 안수집사(010-2421-9090)

결혼예식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예식에 대하여 기획, 진행하며 섬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부부에게 담임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선물도 증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의 팀장 강준수 안수집사(010-4847-1767)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던 사건들

고은애 집사(8교구)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을 하면서 숙제를 하려고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던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던 인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매일 새벽기도를 가시고 집에서는 집안일이나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늘 성경을 읽으시며, 집안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시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저는 엄마의 삶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취미도 딱히 없으시고 기분전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게 되니 대화하기 싫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복편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 엄마가 정말 제대로 살고 계셨구나. 지금까지도 매일을 그렇게 살고 계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회복책 p.122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계획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의 체제를 등지고 천국의 신랑이 주시는 것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엄마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신 엄마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평(71)

뜻 밖의 기습전략!

아시아경제 일러스트('15.7.13. 20면) 패러디

글 • 그림 마준호 집사(신문위원)

바울서신 1

백명렬 목사(목회서기)

신약성경 전체 27권 중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 그의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문제들과 쟁점들을 보편적이고도 시간을 초월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은 때에 따라서 논리적, 사적, 웅변적, 문학적, 서정적, 형식적, 실제적이기도 하면서 감정적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기독교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들입니다.

저자 바울

- 학문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장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지만(행18:3),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는 특권을 얻은 자였습니다(행22:3).
- 예리한 지성과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유대주의자였으며(갈1:14)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행7:58).
- 열정적으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며, 다메섹으로 가서 핍박을 계속하던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 바나바에 의해 사도들에게 소개되기 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갈1:17-18). 그후, 길리기아와 시리아(주로 다소와 안디옥)에서 약 10년을 보냈습니다.
- 그리스 문명과 고전작가들의 문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행17:27, 딛1:2).
- 1차~4차에 이르는 전도여행을 통해 갈라디아지역으로부터 아시아를 지나 유럽대륙인 마케도니아에까지 찾아갔으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후 67-68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기 전에 잠시 석방되어 스페인(서바나)까지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의 형식적 특징

바울서신은 당시의 표준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 받는 사람의 이름, 인사 또는 번성을 위한 기원, 편지의 주요 부분, 마치는 인사와 기원, 그리고 서명 등입니다.

바울서신의 신학적 분류

1) 종말론적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예수님의 재림과 현세에 대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구원론적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구원과 칭의가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3) 기독론적 서신(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4) 교회론적 서신(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교회의 직분자, 행정,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류별 분류

바울서신은 편지의 길이에 따라 순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1) 교회서신

교회에 보낸 편지 9권으로 로마서~데살로니가후서까지 입니다.

2) 목회서신

개인에게 보낸 편지 4권으로 디모데전서~빌레몬서까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효진 자매(청장년1부)

왼쪽에서 두번째 김효진 자매, 왼쪽에서 세번째 김재호 집사

중2 때 주님을 만나 부모님과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특별히 어린 영혼들의 구원사역에 앞장서서 아이들이 있는 운동장으로 매일 찾아가 간식도 챙겨주고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노트에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와 관심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장님들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대화하며 교회 꼭 다니시라고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첫째 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랑을 나누던, 긍정과 열정과 미소의 아이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로 6시간의 뇌수술과 3시간의 다리수술 이후 사고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글씨/문자 및 학습으로 익힌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사고 이전의 기억들만 온전한 상태로, 문자를 잊어버리니 언어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였지만 신체학적으로 듣는 귀가 닫히고 입으로 나오는 정상적인 말이 구현되지 못하니 서서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리더십으로 모임을 힘쓰고 대화를 즐겨하던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고 우울증이 왔으며,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려 노력하면서 오히려 조울증이 찾아와서 더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림'을 선물로 주시어 서양화(유화)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몇 번의 전시회 출품 및 공동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지만 여전히 듣는 귀가 열리지 않다보니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지 못하며 서서히 잊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조울증으로 인한 본인의 고집만 더욱 크게 생겨버리며 그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사고 후 학습으로 익힌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지금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전도의 열정을 실현코자 말어붙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변해버린 시간인데(2009년 10월 사고), 시골 그때 그 시절 본인의 기억 속에 머물며, 지금도 그 당시 방식으로 전도할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재능인 그림을 사용하는 전도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서 교회에 오면 자화상 그림 무료로 멋지게 그려 줄테니 한 번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림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 자녀 덕분에 믿음을 모두 가지게 되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그 마음은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임이 맞지만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반대하면 안 믿는다며 폭력적으로 변하며 무조건 본인 뜻을 따라야 한다는 식인, 조금은 아프셔서 이런 모습이신 이 가여운 성도님인 나의 아빠를 위해 이제는 어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과의 진료는 전혀 못 받고 있으며 글씨를 몇 가지 알아차리는 부분으로 진료를 원치 않으셔서 상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인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아버지를 위해 부디 한 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두 걸음

전애선 집사(10교구)

저는 10교구 전애선 집사입니다. 현재 간과 폐 그리고 뇌에 암이 있는데 말기 상태입니다. 2008년 7월에 유방암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으며, 2012년도에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생존기간이 짧으면 3개월, 평균 2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3주마다 항암주사를 맞고, 항암주사를 3번 맞은 후 CT를 찍어서 좀 좋아졌다고 하면 미소와 함께 '아멘'이 바로 나오고, "나빠졌다"고하면 아쉬움과 염려 등 한마디로 표현키 어려운 마음을 "후~"로 쏟아내는 것을 지금까지 8년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엔 뇌까지 전이되었는데, 생존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사선치료를 10회 한 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9월에 MRI를 찍어봤더니 큰 종양은 작아졌고 자잘한 종양은 많이 없어졌습니다(아멘!)

2012년 전이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아주 심각한 증세였음에도 말씀과 기도로 치유가 되어서 그런지 회복 후 교회 가는 게 예전과 달리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2016년부터 저는 식당봉사를, 남편인 황인철 집사도 다른 사역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싶어서 2017년에 황 집사와 같이 전도폭발 훈련도 받았고요. 저는 1단계만 수료했지만 황 집사는 4단계까지 마치고 그룹장을 거쳐 올해는 전도폭발 목요팀 저녁반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뇌암 진단 후 어지러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때, '누우면 죽고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내일은 두 걸음 걸을 수 있고 그러면 산다'면서 황 집사가 저를 껴안다시피 하여 억지로 몇 걸음이라도 걷게 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제법 합니다. 잠시 쉬었던 식당 봉사도 다시 시작했고요.

암 발병부터 지금까지 12년,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오뚜기라고 부를 만큼 생사를 넘나든 고비가 몇 번 있었음에도 오늘의 제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아멘!) 봇들1 우리사랑방 식구, 식당봉사팀 식구, 로뎀나무 식구, 중보기도팀을 비롯하여 교우님들의 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믿으며, 위로와 격려는 제가 항암치료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토닥거려주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앞으로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장기간 항암치료로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주셨지만, 제가 모르는 몇 분도 재정적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와 황 집사는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하나님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 10배, 100배로 축복해주시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71번째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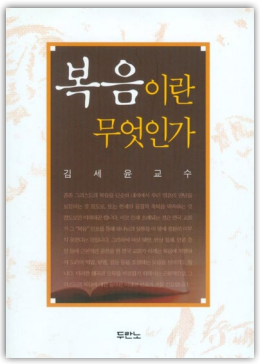
이철규 성도 · 김은희 집사(9교구)

결혼 3년차를 맞이하는 저희 가정은 올해부터 새롭게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을 키웠지만 청소년기에 찾아온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삶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 찬양팀, 사랑방 리더, 간사 등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늘 가족의 영혼구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가정은 늘 살얼음판이었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5세에 시작된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정에 대해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할 것 등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란 그는 신앙의 기복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저 인정하게 해주었고, 그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피부질환이라는 어려움 속에 성장한 탓에 가정에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 했기에 아이에 대한 소망은 아브라함처럼 놓지 못하는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누던 중 저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뒤 귀한 생명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한 날을 떼어서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공통분모가 많은 부부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대가 모여 가정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 저희 가정과 주변 가정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저, 두란노

우리는 복음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단순히 내세에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나 현세의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는 것 정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김세윤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복음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진정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몰라 이단과 미혹에 빠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김용진 목사(고등부 담당)

• 이달의 추천도서는 2층 도서관과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일시** 4.6(월)~4.10(금) 오후 8시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일시	설교 제목	본문	설교자
4.6(월)	사랑은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2:1-11	최강용 목사
4.7(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10	이병수 목사
4.8(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31-39	신선호 목사
4.9(목)	사랑은 섬깁니다	요한복음 19:25-30	장영준 목사
4.10(금)	사랑은 열매맺습니다	에스겔 47:7-12	김사무엘 목사

올해 고난주간(4/6~4/10)에는 오후 8시에 온라인 특별 저녁기도회로 모인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난주간 기도회라 오전 4:50에 일어나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미 오후 8시 기도회가 담임목사님의 기도 영상으로 자리가 잡혀있기에 오후 8시 기도회로 모인다.

중국유학생들 대구시에 코로나19 성금 전달

할렐루야교회 중국어예배부에 출석하며 단국대학교에 유학 중인 류문호, 천링운 형제들은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빠르게 모금운동을 펼쳤다.
사흘만에 230만원을 모았으며 단국대학교 김수복총장은 이 소식을 듣고 100만원을 더하여 33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에 전달하였다. 류문호 형제는 할렐루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랠루야 신춘 신앙문예 잠정 연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계획을 잠정 연기하며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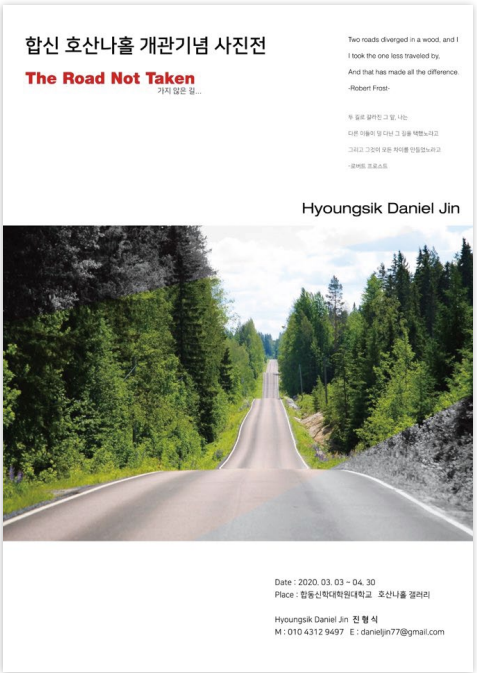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에 이은 온라인 사랑방모임 개강

2020년 1학기 사랑방 모임을 3월 22일(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였다. 각 교구별 사랑방은 주일 예배 말씀에 대한 나눔 질문지를 사랑방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묵상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

8교구 분당 남자1 사랑방

진형식 집사, 사진전 열어(3/3~4/30)

이번 사진전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내의 호산나홀 개관 기념 사진전으로서, 신학생과 사진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가야할 길, 멈춰야할 길, 뒤돌아 봐야할 길, 멈춰서서 봐야할 길, 때로는 돌아가야 할 길 등 아름다운 자연을 담고 있다. 작가가 먼저 가본 아름다운 길사진을 통해 '가지않은 길'에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와이, 아일랜드, 핀란드 등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 **진형식 집사**(사진팀 부팀장)



-4월-

십자 퍼즐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Cross Words!

아래 퍼즐의 정답과 이름, 교구 및 연락처를 적어서 점선을 따라 잘라서 매월 17일까지 신문사(221호)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호에서 알려드려요.

	①				⑦		⑧	
②			⑥				⑨	
	⑤							
③								
	④			⑩		⑪		
								⑭
⑮			⑱		⑫			
⑯		⑰						
						⑬		

응모자 :　　교구 및 소속 :

전화번호 :

지난 호 정답 및 당첨자

		삿						
잇		두	발	가	인		디	
사				룻			모	압
갈	보	리		유	브	라	데	
	디			다		암		
데	베	스				셋		바
	라		무		가		세	리
			시	므	이			새
	가	브	아		사	두	개	인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호 당첨자는 5월호에 발표 예정입니다.※

※주일 11시 2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신문사(221호)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로 문제

②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부하인 이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다(삿7). 아마도 그는 기드온의 부관 정도되는 사람으로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때에도 함께 동행했던 10명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삿6).

③ 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 문안한 성도들 중 한 사람으로(골4,몬1)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딤후4).

④ 사해 북동쪽에 위치한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며 북서쪽에는 비스가 산이 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다(신32,34).

⑤ 올해(2020년) 종려주일을 지나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다. 올 해에는 최강용, 이병수, 신선호, 장영준, 김사무엘 목사님이 사순절 새벽기도를 섬긴다.

⑦ '주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된 말로,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일에 종사했다(대상9:2). 기브온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등 대부분 이방인 전쟁 포로 출신들로 이스라엘 초기에는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나 포로 귀환 당시 많은 이들이 유다로 귀환해 집단을 이루었고(스2)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하고 성막 재건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 성전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였다(스7,느10).

⑨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으로, 완대 이곳은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였으나 다윗이 잡령하여 성을 쌓고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삼하5)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왔다(삼하6).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고 이후로 거룩한 산(시2), 왕의 성(시48), 거룩한 자의 ○○(시60), 여호와의 산(미4) 등으로 불렸다. 또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으며(왕하19,시48,69,133,사1) 이스라엘 회중이나 국가를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고(시126,129,사33,34,49,52) 영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한다(히12,계14).

⑩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을 보낸 곳으로(창24),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며 또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이곳 외삼촌 집에 머물며 레아와 라헬을 비롯한 아내들을 얻었고 13남매를 낳았다(창25,28).

⑫ 유다 지파 웃니엘의 아들이며 갈렙의 조카이다(대상4).

⑬ 애굽의 나일 강 삼각주 남동 지역으로 비옥한 지역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여 출애굽까지 거주했던 곳이다(창46,출8,9).

⑯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편지 중 4번째 편지의 수신자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칭찬 받았으나 음란한 여선지 '이세벨'의 이방 제사를 용납한 이들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계2). 유럽 최초의 여신도 자색 옷감 장사인 여성도 루디아가 이 지역 출신이다(행16). 빌립보 교회의 전신(행16).

▼세로 문제

① '분리하는 바위', '파난 바위'란 뜻을 가진 바위로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몸을 피해 숨었으며 이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찾지 못하고 블레셋을 치러 돌아갔다(삼상23).

⑥ 애굽의 스에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호와가 이사야를 통하여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원방에서 혹은 북방과 서방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돌아 오리라도 예언하였다(사49).

⑦ '느보는 자손을 주셨다'는 뜻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 함락과 포로 이송 등 군사 작전의 제반 책임을 맡은 자였다(왕하25,렘52).

⑧ 북이스라엘 왕 여후의 아버지이거나, 조부이거나, 증조부(왕하9에서 중복 언급, 대하22).

⑩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에 의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때에 사도 요한이 18개월 동안 이곳 섬에 유배되어 노역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신이 이 섬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계1).

⑪ 헬라 수도 아덴에 있는 고등 재판소로 건물 없이 산위에 운동장같이 계단으로 좌석을 만들고 원고 피고를 중앙에 세워 재판관이 심문하고 판결하는 곳으로 바울이 잡혀가서 이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였다(행17).

⑭ 구체적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으로 바벨론 제국의 중심 영토였다. 앗수르 시대에는 '칼두'라는 작은 나라였으나 기원전 6C경 바벨론으로 성장하여 앗수르를 멸망시켰고 바사 제국에 패망하기까지(기원전 5C경) 메소보다미아 전역을 통치했던 나라였다. 이 지역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하여 이 지역 사람들은 후에 그리스, 로마, 애굽 등을 떠돌며 마술사나 점성술사로 활동했다. 그래서 '○○○ 사람'이란 단어는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백성을 의미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술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도 사용되었다(단2,4,5).

⑮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들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인 후처로(창25). 여섯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훗날 미디안 자손이 되었다(대상1).

⑰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외동딸로(창30),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중 세겜에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야곱은 급히 벧엘로 가는 여정을 재촉하게 되었다(창34).

⑱ '(쌀이나 보리 등의) 낟알'이란 뜻이며 중량을 재는 단위로 20분의 1세겔(레27,민3)에 해당한다. 1세겔이 약 11.4g으로 간주되므로 1○○는 대략 0.57g의 작은 단위이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자가 20세가 되어 계수에 포함될 때 10○○에 해당하는 속전(속죄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다(출30).

출제 김정진 목사(양육공동체 담당)

※ 참고: 라이프성경사전(생명의 말씀사), 한국컴퓨터선교회(http://kcm.kr), 성경지명사전(한국성서지리연구원) 등

‘그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해요.’

고개를 들면,
셀 수 없이 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를 속죄하고
죄 사함으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평안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면,
점점 더 많은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개를 떨구게 되고
서로가 위축되어
한없이 작아지는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향해 있는
십자가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더욱 부여잡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하여
서로를 사랑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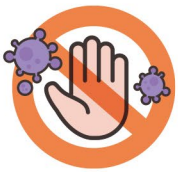
글/그림 한정훈 집사(신문위원)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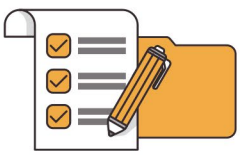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출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